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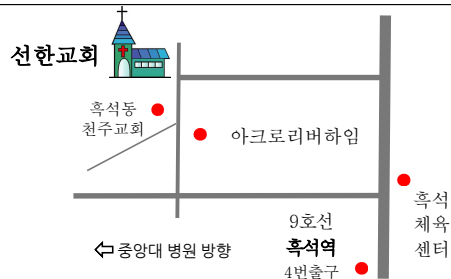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3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3장 (통일찬송가 23장)	
교 독 문	교독문 28 (시편 63편)	
찬 양 과 경 배	269장 (통일찬송가 211장)	
대 표 기 도	조운익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43 ~ 48절	
설 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라 (잠2:1-22)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국내선교 및 전교인 수련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선교와 전교인 수련회는
갖지 않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가정예배

그 큰 사랑을 아십니까?

찬송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통 404)
본문 :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 세상에서 인간만큼 위대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락된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이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숨을 쉬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다 죽어 있다는 뜻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부끄러운 여러 행동을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규칙이나 법령을 어길 때 이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가장 부끄러운 허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르고 살았던 지나온 삶이 사실 부끄러운 게 되고 허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산다면 이는 ‘죄’가 됩니다. 비록 법을 어기지는 않았대도 마음속으로 잘못된 걸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부끄러운 짓들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의 우리를 ‘진노의 자식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인격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퍼트린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에 속아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왔던 겁니다. 공허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부끄러운 짓만 하다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죄는 모두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5:43-48)
서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말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론	1. ‘원수를 사랑하라’의 의미	
	(1)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43절/레19:18)	
	(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44절)	
	(3) 사랑의 근거: ①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②하나님 (자녀)의 성품은 무엇인가? ③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45절)	
	(4)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할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것’이다 (46,47절)	
	(5)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48절)	
	2. 교환	
	(1)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2) 사랑할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결론	사랑할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운익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죄의 습관	날짜 : 8월 3일
찬양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본문	로마서 5:1-11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작은 환난이야 버틸 수 있지만, 큰 환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고, 더 이상 회의를 이겨낼 힘이 없게 되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안의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의심이 짝트고, 고난이 길어지고,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기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혹여 옛사람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고난, 괴로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찬양과 기도	주 예수 따라가며 (새 449 / 통 377)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앵겔 지수’는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계층의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앵겔 계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앵겔 계수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흥과 욕망의 현장,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좇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말씀 나누기	로마서 6:12~23	
묵상포인트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즉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를 통해 얻습니다. 이신칭의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즉 죄인 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 의로우신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사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칭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성화(Sanctification)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6:1~8). 세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12~13절)	
적용하기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어떤 점이 어렵나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죄와의 내적 분투	날짜 : 8월 7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로마서 7장 14절-25절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바울은 회심 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죄성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수록, 죄에 붙잡혀 죄에게 종노릇하는 무능력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 바임을 알지만, 그와 다르게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실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며, 죄와의 내적 분투 속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죄와의 영적인 분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바울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매일 Q.T.		죄 값	날짜 : 8월 4일
찬양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본문	로마서 5:12-21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죽음, 고통과 절망 속에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원적인 죄악과 본질적인 한계 안에 살 수 밖에 없고,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조금 일찍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가느냐?’시차만 있을 뿐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묵상 질문	1.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선물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언제,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15절)		
오늘의 기도			

매일 Q.T.		그리스도와의 연합	날짜 : 8월 5일
찬양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본문	로마서 6:1-11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진정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한 자는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도 하며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로 인하여 더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며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주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을 두려워하며 떨지 않아도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 남편인 죄에 대하여 그리워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더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매일 매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묵상 질문	1. 우리는 무엇에 죽은 자며 무엇에 산 자입니까(롬6:11)?		
오늘의 기도			

매일 Q.T.		율법에 대한 무지	날짜 : 8월 6일
찬양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본문	로마서 7장 1절-13절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이 살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왜곡된 자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사실은 죽음을 가져왔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비참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묵상 질문	1. 율법에 비추어 최근 깨닫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